

# 中, 첫 우주 도킹 성공.. 우주강국 성큼

## 미·러 이어 세번째 국가 2020년 독자 정거장 건설

중국이 첫 번째 우주 도킹에 성공했다. 중국 우주항공국은 3일 오전 2시47분(한국시간) 실험용 우주정거장 모듈인 텐궁(天宮) 1호와 무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8호의 도킹이 성공했음을 선언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우주개발 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이번 우주 도킹은 지구 상공 343km의 우주 공간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이번 도킹 성공으로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핵심 관문중 하나를 통과, 우주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중국은 또 미국, 러시아에 이어 우주 도킹에 성공한 세번째 국가가 됐다.

G20(주요 20개 국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중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은 첫 우주도킹 성공소식을 듣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 기쁨을 표시했다. 중국유인우주정거장 총설계사인 저우젠핑(周建平)은 “이번 도킹 성공으로 중국은 앞으로 보다 폭넓게 우주 탐험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내년 선저우 9호와 선저우 10호를 잇달아 발사해 우주인을 잠시 텐궁 1호에 들여보내다가 귀환시키는 실험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후 텐궁 2호, 텐궁 3호를 발사해 우주정거장 운영 노하우를 쌓은 뒤 2016년경부터 정식 우주정거장 모듈을 차례로 쏘아 올려 2020년 무렵부터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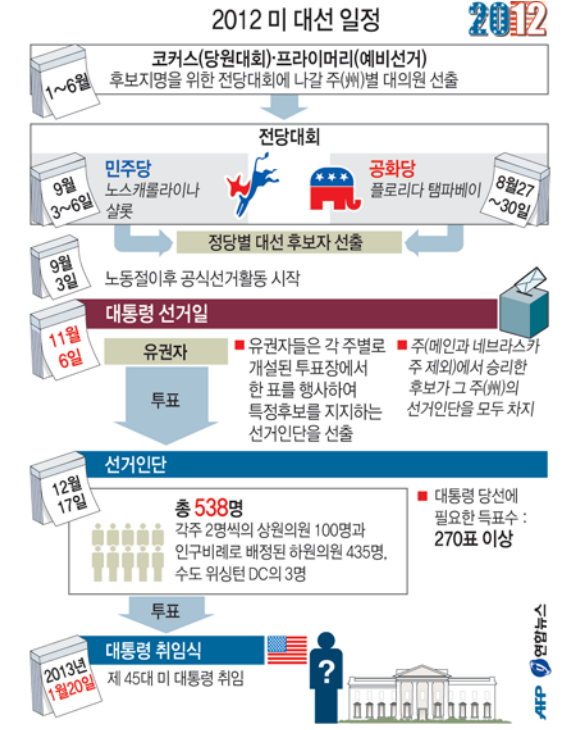


중국의 실험용 우주정거장 모듈인 텐궁(天宮) 1호와 무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8호가 도킹을 시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 박빙승부... 경기회복 핵심 변수

## ■ 美대선 1년앞... 오바마 재선 성공할까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의 대선은 민주·공화 각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주(州) 별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 대선 후보 추대를 위한 전당대회 → 대통령선거 등의 절차를 거치며 진행된다. 특히 공화당 대선후보를 뽑는 첫 번째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1월3일)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미 정치권은 사실상 선거전에 빠져들고 있다. 이번 대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내년 선거는 박빙의 승부로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판세를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다. 특히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제지표인 실업률이 수개월째 9%를 상회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 요인과 맞물려 흑인, 히스패닉계 이주민, 노동계 등 전통적인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오바마 재선 캠프에는 심각한 문제다. 긍정적인 신호도 없진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이길 공화당 후보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 자금과 조직 면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롬니 선두권... 흑인 케인 '돌풍' 주목

■ 오바마 공화 상대는 누구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1월 3일)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전히 경선 레이스는 '안갯속'이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안정적으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 다른 주자들의 등락이 심해 현재로서는 선불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일한 흑인 주자인 허먼 케인 전 '갓파더스 피자' 최고 경영자(CEO)가 예상 밖의 선봉적 인기를 끌면서 최근 지

지를 선두를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흑흑(黑黑) 대결'을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경선 판도가 결국 롬니 전 주지사와의 다른 주자의 '양강 구도'로 흐를 것이라고 대체로 점치고 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흑자 회계를 치르는 수완을 발휘했고, 주지사 시절 추진한 각종 개혁 정책 덕분에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자수성가한 페리 주지사는 보수진영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출마 선언 직후 롬니 전 주지사를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했으나 최근 '말실수'로 중도권으로 밀려났다. /연합뉴스

## “끊임없는 도전정신 기억하겠다”

### 박영석·신동민·강기석 합동영결식 염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박영석(48) 대장과 신동민(37), 강기석(33) 대원의 합동영결식이 3일 오전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대한산악연맹과 한국산악회, 한국대학산악연맹 등 산악단체 회원들과 산악인들, 실종자들의 가족, 지인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영결식 시작부터 산악인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조문객들은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들의 동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음악이 흐르자 속연

한 분위기 속에 흐느낌을 터뜨렸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은 조사에서 “우리의 만남이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지구상에 인간이 가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박영석 대장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은 우리 마음에 살

아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항상 등반의 선두에 선 신동민 대원과 막내로서 곁은 일을 도맡아 해온 강기석 대원은 우리의 보배이자 희망이었으며 그들이 추구한 가치, 도전과 개척 정신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동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전병구 한국산악회 회장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추도사, 배경미 대한산악연맹 국제교류 이사가 헌시를 낭독했으며, 알파인 코러스 팀의 ‘악우가(岳友歌)’, 이춘애 소프라노의 ‘그리운 금강산’이 조가로 영결식장에 울려 퍼졌다. 실종된 산악인들의 가족과 안나푸르나 등반에 동참했던 이한구, 김동영 대원, 장례위원회 위원 등의 헌화가 이어지며 처음으로 전체 산악인들을 아우르는 ‘산악인 장’으로 치러진 박영석 원정대의 영결식은 끝났다. /연합뉴스